

섬진강 흘러 이야기꽃 피우고

이슬비 따라 떠나는 즐거운 곡성여행





섬진강은 흐른다

남도를 흐르는 물줄기들이 모여 이룬 강
웅장하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순정한 강
급이급이 530리 물길이 이어진
그 강의 이름은 섬진강(蟾津江)이다.

오래오래 섬진강 물줄기를 바라보면
얽은 눈동자는 더욱 깊어지고,
흩어졌던 마음도 어느새 하나가 되는데
그건 아마도 섬진강이 담아낸 무수한 이야기들 때문이 아닐까.

두꺼비가 울어 왜구를 격퇴시켰다는 전설이 남아 있는 강
6.25 남북분단의 상처를 기억해온 역사의 강
섬진강 사람들, 섬진강변 17번 국도,
섬진강 작은 풀꽃까지도 저마다 이야기가 흐르는 강

그 강이 지금 당신의 마음으로 흘러간다.
섬진강 푸른 물을 따라 잠시나마 함께 걸어보는 건 어떨까.



섬진강 흘러 이야기꽃 피우고
CONTENTS

SECTION 01

기차길 옆 섬진강

섬진강기차마을

- 10_추억으로 여행 **증기기관차**
- 14_섬진강이 품은 비밀의 정원 **장미원**
- 16_신비한 곤충 세상 속으로 **천적곤충관**
- 20_철길 위를 달리는 자전거 **레일바이크**
- 22_남도의 넉넉한 인심과 정(情) **전통시장**
- 24_이야기가 흐르는 땅, 곡성's Story **섬진강 따라 전설따라**

안녕하세요,
 섬진강 길잡이,
 이슬비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섬진강 따라~ 곡성 여행,
 시작해볼까요?
 모두 Go Go Go!



SECTION 02

섬진강변에서 하룻밤.

자연 속 마을

- 30_효녀 심청, 그 너른 품에 누운 **심청이야기마을**
- 34_남도 전통의 맛이 가득한 **가정마을**
- 36_섬진강, 별이 빛나는 밤에 **섬진강천문대**
- 38_꿀처럼 달콤하고, 하늘처럼 깨끗한 **하늘나리마을**
- 42_섬과 여유를 누리는 **섬진강 마을**
- 44_이야기가 흐르는 땅, 곡성's Story **섬진강 따라 전설따라**

現) 광주MBC 생방송 전국시대, 6시 뉴스매거진 리포터
 現) TBN 광주교통방송 취재리포터
 現) BBS 광주불교방송 「음악의 마을」 MC

SECTION 03

섬진강 흐르니, 추억이 쌓이네

섬진강가에서

- 48_섬진강아 놀자 **곡성군 청소년 아영장**
- 50_섬진강을 품고 달린다 **자전거 하이킹**
- 52_섬진강을 건너온 이야기1 **호곡나룻터 줄배**
- 54_섬진강을 지키는 도깨비 **마천목장군 도깨비살**
- 56_길 따라 마음을 닦는 곳 **태안사**
- 60_태안사에 잠든 지상의 시(詩)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 62_이야기가 흐르는 땅, 곡성's Story **섬진강 따라 전설따라**

SECTION 04

섬진강 굽이굽이

곡성 둘러보기

- 66_아직 못 다한 이야기 **곡성 둘러보기**
- 68_자연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곡성 축제**
- 70_흥과 멋이 넘치는 곡성의 **민속놀이**
- 72_세월 따라 이어온 옛 것의 아름다움 **곡성의 전통**
- 74_자연을 담은 **곡성의 맛**
- 76_곡성 **관광안내**



추억으로 여행 **증기기관차**

섬진강이 품은 비밀의 정원 **장미원**

신비한 곤충 세상 속으로 **천적곤충관**

철길 위를 달리는 자전거 **레일바이크**

남도의 넉넉한 인심과 정(情) **전통시장**

이야기가 흐르는 땅, 곡성's Story **섬진강 따라 전설따라**

Section 1.

기차길 옆 섬진강
섬진강기차마을



추억으로의 여행 증기기관차



전남 곡성군 오곡면에 자리한 섬진강 기차마을.

그 옛날 하얀 수증기를 뿜어내며 달리던 증기기관차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사실 증기기관차는 1967년 8월 31일, 전북 남원에서 출발한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하면서 그 자취를 감췄다. 또한 지금의 섬진강 기차마을이 조성된 곡성역도 1999년, 인근에 새로운 역사가 들어서면서 구불구불한 옛 철길과 함께 버려졌다. 그런데 지금 옛 곡성역에 기차마을이 조성되면서 폐선된 선로 위로 증기기관차가 운행되고 있는 것이다. 사라져간 것들을 통해 때론 회미해진 옛 기억도 되살아나고, 새로운 추억도 생기는 법. 매일 다섯 차례 운행되는 증기기관차는 오늘도 섬진강이 펼쳐놓은 풍경을 따라 천천히 달리고 있다.

옛날 모습 그대로~ 섬진강 기차마을 증기기관차

www.gstrain.co.kr

- 운행구간 : 편도 10km(왕복 운행 시 20km)
(하행) 섬진강 기차마을 (구 곡성역)→ 가정역 (청소년 야영장 입구)
(상행) 가정역 (30분 정차)→ 섬진강기차마을 (구 곡성역)
- 운행횟수 : 평일, 주말, 공휴일 - 5회(연중무휴)
*사정에 따라 결행 및 증편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소요시간 : 1회 운행시 80분
- 승차인원 : 370명(좌석190명, 입석180명)
- 탑승권매표 : 인터넷을 통한 예매 및 현장발권
- 이용요금(좌석)
대인 : 왕복 6,000원, 편도 4,000원 / 소인 : 왕복 5,500원, 편도 3,500원

증기기관차 운행시간표

구분	기차마을	가정역	기차마을	가정역	운행일
1	09:30	09:55	10:25	11:00	연중
2	11:30	11:55	12:25	13:00	
3	13:30	13:55	14:25	15:00	
4	15:30	15:55	16:25	17:00	
5	17:30	17:55	18:25	19:00	



섬진강 흘러 이야기꽃 피우

섬진강 물리 이야기꽃 피우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 번 해보고 싶은 것, 다시 한 번 만나고 싶은 사람, 이루어보고 싶은 꿈들이 있나요? 무언가를 경험해보고 난 후의 후회보다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가 더 크다는데요, 그걸 두고 '비행동 후회'라고 한다죠? 여기, 과거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짧은 기적 소리가 울리고, 덜컹덜컹 거리며 기차는 출발합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을 지금 떠올려보세요. 작은 창 너머, 섬진강 푸른 물결 위로 그 옛날 미적거리던 당신이 떠오르네요. 자, 이번엔 어떤 선택을 내리시겠어요? 다시 한 번쯤 돌아가 보고 싶은 그 순간을 호명하며, 증기기관차 첫 계단에 발을 한 번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슬비의 Tip>

곡성여행을 올때 사진기를 꼭 챙겨주세요. 사진찍기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기차마을에서는 기차길과 증기기관차의 색깔이 어두우니까요, 밝은 색의 옷을 입으면 좀 더 근사한 사진이 나온답니다 ^^



섬진강이 품은 비밀의 정원, **장미원**



섬진강기차마을에 국내 최대 규모의 장미원이 꾸며졌다.
2만㎡에 달하는 초대형 장미원에서 이제 해마다 초여름(5월~6월)이 되면 1004종의 다양한 장미꽃을 만날 수 있다.
장미 미로원, 장미 꽃탑, 장미 아치 터널을 비롯해 연못에서는 200여종의 연꽃도 감상할 수 있다.



내 가장 친한 벗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내 친구 썬스타! 내 친구 루포! 내 친구 시트란! 하고,
 수많은 장미꽃의 이름을 불러 봐도 혹은 외워 봐도 좋겠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고 하지 않던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이 아름다운 정원에 당신만의 장미가
 피어날지도 모를 일이다.



<슬비이 Tip>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예쁜 장미가 늦가을부터 초겨울까
 지는 국화가 여러분을 반겨줄거예요. 이왕이면 다음해 봄까
 지는 꽃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꽃을 보고싶은 분들은
 겨울 전에 방문해보세요.

섬진강 물러 이야기꽃 피우고

신비로운 곤충 세상 속으로 섬진강 천적 곤충관





천적 곤충관은 우리 생태계에서 점차 멸종되어 가는 곤충들과 섬진강에 서식하는 토종 동·식물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섬진강의 깨끗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곤충들을 살펴보고,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 천적곤충관에 들러보자.



섬진강 천적 곤충관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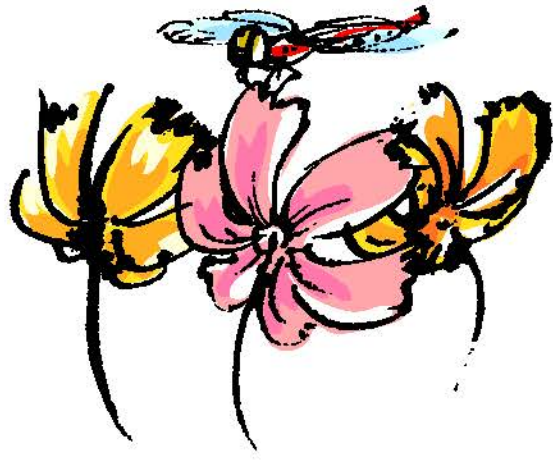
- 장 소 : 섬진강기차마을 내
- 운영시간 : 매일 10:00~18:00
- 휴 관 일 :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익일)
- 입 장 료 : 무료
(추후 조례 제정후 요금유료화 예정임)
- 문 의 : 061)363-2190

섬진강 천적 곤충관 소개

- 곤충세상으로
- 신비로운 곤충세계
-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농업
- 섬진강의 여행
- 섬진강의 자연생태
- 아름다운 섬진강

섬진강 물리 이야기꽃 피우고





쥐와 뱀, 배추흰나비와 배추나비고치벌.

이들 사이에는 무시무시한 단어 '천적'이라는 말이 가로 놓여 있는데 천적이란, 잡아먹는 동물을 잡아먹히는 동물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비슷한 뜻으로 '목숨앗이'라는 말도 있다.

요즘은 천적 곤충을 가지고, 해충을 잡으며 친환경 농사도 많이 짓는다. 그런데 이 천적관계가 과연 생태계에만 있을까.

내 안의 게으름을 잡는 천적은 무엇이 있을지 떠올리며 섬진강의 천적관계를 찾아보는 즐거움 또한 누리 봐도 좋겠다.

<슬비미 Tip>

이 곳은 어린 이와 청소년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어기자기한 곤충 페스티벌도 펼쳐지니까요,
쿵쾅쿵쾅~ 곤충들이 펼치는 화려한 무대를 꼭 보고
오세요!



철길 위를 달리는 자전거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는 곡성역 기차마을 내 순환형(1.6km)과 침곡역~가정역 구간(5.1km) 두 종류다. 가정역 구간은 20~30분 정도 달릴 수 있는데 섬진강의 풍경과 고즈넉한 시골 정취를 여유롭게 느낄 수 있다.

17번 국도를 지나가는 차량이나 자전거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도 재미있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방문객이 많기 때문에 레일바이크를 타려면 예약은 필수다.

레일바이크 안내

www.gstrain.co.kr

01. 침공역부터 가정역까지 섬진강을 품고 달리는 섬진강 레일바이크

- 운행구간 : 침공역 ~ 가정역 5.1km(편도)
- 인터넷예약/현장예약 이용가능하며 운행시간표 참고(1회 편도당 30~40분정도 소요)
- 신형 레일바이크 4인승 60대 2인승 40대 보유
- 이용요금 : 2인승 15,000원 / 4인승 22,000원

02. 섬진강 기차마을 내에 위치한 순환형 기차마을 레일바이크

- 운행구간 : 구 곡성역 ~ 곡성역 1.6km(왕복)
- 인터넷/현장 예약없이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이용(1회 왕복당 20분정도 소요)
- 이용요금 : 7,000원

* 예약 및 문의 : 061)362-7717

섬진강을 끼고 레일바이크를 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을 한 채 페달을 돌리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셀카를 찍거나 과자를 먹거나 또는 팔짱을 낀 자세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럴 때 당신은 양 팔을 번쩍 들어보면 어떨까.

온 자연을 가슴에 품겠다는 의지로 가슴을 펴고, 팔을 뻗으면... 그때만 큼은 길고 긴 섬진강이 당신의 품속으로 와락 안겨들 테니 말이다.



<슬비의 Tip>

가정역 도착 5분전에, 오르막이 시작돼요. 힘차게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갈 수 있으니, 미리 맛있는 간식을 든든히 먹고, 열심히 페달을 밟아보세요



섬진강 물러 이야기꽃 피우고

남도의 넉넉한 인심과 정(情)

섬진강기차마을 전통시장





3일과 8일에 열리는 5일 시장이다.

낮과 칼, 각종 기구들을 수작업으로 만드는 대장간 등 볼거리와 손두부, 추억의 빵 튀기, 장작불 백반 등 옛 시골장의 맛난 먹을거리가 가득하다.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빵~' 하는 빵튀기 기계 소리에 살짝 귀도 막아보고, 구수한 빵 튀기도 맛보며 옛 추억을 떠올린다.

섬진강기차마을 전통시장은 옛 곡성장을 새로운 장터 안으로 옮겨 놓은 것이다.

곡성장의 명물들이 고스란히 옮겨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팔죽'이다.

시장 한 구석에서 손으로 직접 밀고 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100% 국내산 팔로 만든 구수한 팔죽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나눌 만큼 정겨운 맛이다.

고향의 맛이 그리다면, 섬진강 기차마을 전통시장 팔죽집에 들러보자.

<슬비 Tip>

대장간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이곳에는 옛 모습을 간직한 대장간도 있고요. 손으로 직접 치면 칼국수를 넣어 끓인 팔죽도 김을 모라모라 내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곡성의 팔죽은 다른 지방에서는 팔칼국수라고도 불리더라고요. 맛있는 팔죽도 꼭 맛보세요~



이야기가 흐르는 땅, 곡성's Story 섬진강 따라 전설 따라 I

첫 번째 이야기 _ 신선바위 (동약산 상봉)

신선바위는 동약산 상봉에 있는 바위다.
그 옛날 신선들이 바둑을 두며 놀던 자리라고 해서 신선바위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곳은 원래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다.
그런데 이곳의 기우제는 좀 독특하다.
날이 가물고 비가 오지 않으면, 하늘을 감동시키는 지극 정성으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하지만 오히려 기우제를 지내는 바위 위에 똥과 오줌을 누며 신을 노하게 만들어 큰 비를 내리게 했다고 한다.
이렇게 대담한 기우제라니
덕분에 근엄한 신도 때론 웃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야기 _ 딸섬 (곡성읍 동산리 동산쟁이 마을)

곡성읍 동산리 섬진강에 있는 바위다.
옛날 옛적,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한 처녀가 기근이 들자 강 건너 마을로 밥을 구하러 갔는데 그 사이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만다.
처녀가 어머니를 부르다 숨을 거둔 곳이 바로 이 바위인데,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물에 잠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딸의 지극한 효성을 기려 하늘이 내려준 섬이라고 해서 '딸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곡성에 이토록 많은 효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강, 섬진강의 따뜻한 품 때문이지 않나 싶다.

세 번째 이야기 _ 강감찬 장군과 모기 (오곡면 압록 | 리 압록마을)

고려 현종 때(1500년경) 강감찬 장군이 어머니를 모시고 압록마을을 지나다 이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모기떼의 극성이 워낙 심해 어머니가 괴로워하자 그 모습을 보다 못한 강감찬 장군이 고향을 질렀다. 그 고향 소리에 놀란 모기들의 입이 닫혀버렸는데 지금도 이곳에는 모기가 드물고 간혹 있다고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도 압록마을에는 강감찬 장군의 효심에 모기들도 놀랐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네 번째 이야기 _ 마천목 장군과 호랑이 (고달면 두계리)

마천목 장군이 어린시절 효성이 너무 지극함에 호랑이가 감동하여 스스로 짐승을 잡아다가 사립문 안에 던져 보냈다고 한다. 마천목은 이를 맛있게 요리하여 부모님을 공양하였는데 하루는 꿈에 노인이 나타나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마천목이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잠을 깨어 그곳에 달려가 보니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 마천목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 보은의 뜻으로 함정 주인에게 호랑이를 사서 살려 보내주었다는 마천목 장군의 효행과 호랑이에 관한 이야기가 구전되어 온다.



섬진강 물러 이야기꽃 피우고

다섯 번째 이야기 _ 싹다리(곡성읍 장천리 장천마을)

고을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했다.
새로 부임한 원님 때문이었는데 그 횡포가 어찌나 심했던지 원님을 빗댄 노래가 온 고을에 돌 정도였다.

‘오리야 오리야 뒤뚱뒤뚱 오리야
산 넘고 물 건너 여기까지 왔느냐

우리 집 마당엔 들어오지 말아라
부른 배를 하고서 뒤뚱뒤뚱 거리다
우리 형님 마주쳐 모가지가 베일라

오리야 오리야 뒤뚱뒤뚱 오리야
산 넘고 물 건너 멀리 멀리 가거라 ‘

원님의 걸음걸이가 마치 오리와 같았는데 이 노래는 원님의 귀에까지 들렸다. 원님은 그 요망한 노래를 지어낸 자들이 누구인지 직접 찾아내기로 했다.

덕수와 창의, 희덕과 만호는 한창 눈을 매고 있었다. 마을에서도 힘이 세기로 유명한 청년들이었다. 하루 종일 눈에서 고된 작업을 해야 했기에 마을 어르신들은 일명, ‘오리노래’로 흥을 냈다. 그런데 마침, 고을 원님이 눈 옆의 다리를 지나다가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불호령이 떨어졌고, 마을의 어르신들이 모조리 잡혀갈 위기였다.

두고 볼 수 없었던 덕수가 나섰다. 원님이 탄 말의 다리를 부러뜨렸는데 마을 청년들과 원님 행렬 간에 큰 싸움이 벌어졌다. 싸움이 벌어진 곳이 다리였는데 지금까지 ‘싹다리’라 불린다. 그 후 청년들은 관아로 소환돼 문초를 받았다.

“에끼, 고얀 놈들 천 것들이 감히 나라 원님의 길을 막아?”

“저희는 그저 이렇게 눈을 매고 있었을 뿐입니다”

덕수와 창의, 희덕과 만호는 재빨리 눈을 매는 시늉을 했다. 그런데 힘이 어찌나 썩던지 관아의 마당이 삼시간에 파헤쳐졌다. 원님과 관아 사람들은 그 광경에 놀라고 말았다.

“이, 이 놈들 감, 감히 관아 마당을 이, 이렇게...”

“나리, 저 놈들 보통 장사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곤장 몇 대 때리고 풀어주는 것이 후환이 없지 않겠습니까?”

청년들은 그들이 쑥덕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곧이어 원님이 말했다.

“내 너희를 나랏님의 마음으로 감쌀 것이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우스꽝스럽게도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들이라며 청년들은 방면되었다. 덕분에 마을 어르신들 또한 그냥 풀려날 수 있었다. 덕수와 창의, 희덕과 만호는 어깨동무를 하며 관아를 걸어 나왔다. 그들의 입술 사이로 한 노래가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효녀 심청, 그 너른 품에 누운 **심청이야기마을**

남도 전통의 맛이 가득한 **가정마을**

섬진강, 별이 빛나는 밤에 섬진강 **천문대**

꿀처럼 달콤하고, 하늘처럼 깨끗한 **하늘나리마을**

쉽과 여유를 누리는 **섬진강 마을**

이야기가 흐르는 땅, 곡성's Story **섬진강 따라 전설따라**

Section 2.

섬진강변에서 하룻밤,
자연 속 마을



효녀 심청, 그 너른 품에 누운 심청이야기마을



가 정역에서 곡성역 방향으로 2km 정도 내려가다 보면 좌측 산중턱에 기와집과 초가집이 어우러져 있는 곳을 만날 수 있다. 기와집 6동과 초가 12동으로 구성된 이 마을이 바로 심청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심청이야기마을'이다. 곡성이 심청의 고장으로 떠오르면서 쇠쟁이 마을 옛터에 전통 한옥으로 된 숙박마을 조성했다.

| 심청이야기마을 이용안내 |

- 코레일관광개발 곡성지사 / Tel 061)363-6174

돌담길 따라 심청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곳

마을 입구에서 인당수에 막 뛰어들 듯한 효녀 심청의 조형물을 만날 수 있다. 또 심청 이야기에 등장인물을 소재로 만든 장승과 효행기념비도 있어 여느 설화 마을과는 달리 생생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심청이야기마을'은 실제로 숙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산과 물, 바람소리를 들으며 전통 가옥의 분위기를 맞볼 수 있다.

늦은 밤 곤충소리와 새소리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은 심청이야기마을이 주는 보너스다.



<슬비 Tip>

부모님이나 자녀의 손을 꼭 잡고
이마을의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심청과 심봉사의 정(情)을 나누볼까요?

호녀 심청, 다시 태어나매

소소한 이야기들을 품고, 새기고, 기억해온 곡성.
이 고장을 대표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역시 <심청전>이 아닐까.

곡성은 <심청전>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 원흥장의 고향이기도 하다.
원흥장의 이야기는 이렇다. 맹인 원랑에게는 흥장이라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눈을 뜰 수 있다는 한 스님의 말에 원랑은 딸을 시주하게 된다.
흥장은 스님을 따라가다 한 포구에서 진나라 황제가 보낸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황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그러나 아버지를 잊지 못한 흥장은 고국에 관음상을 보내게 되고, 그 불상이 안치된 곳에 절이 창건됐는데 그곳이 오늘의 곡성 관음사란다(물론, 그 후 원랑은 눈을 뜨게 되었다).

심청전의 원류인 원흥장의 설화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지금의 관음사인 것이다.



누구나 알지만, 또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흐녀 심청의 이야기.
그 오랜 이야기가 곡성에서 다시 켜어지고 있다.

가슴에 이야기 하나쯤 간직해야 할 것은
아주 먼 시절,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의 등불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하다는 당신,
심청의 고향, 곡성에서 다시 한 번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일지도 모를 일이니...



남도 전통의 맛이 가득한 가정마을



꼭 성 가정마을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이다. 청소년 야영장과 인접해 있고, 섬진강과 시골의 향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 이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한데 그 중에서 단연 인기라면, 인절미 만들기와 전통 손두부 만들기 체험이다. 계절에 따라 산나무 채취, 버섯 따기, 고구마 구워 먹기 등의 체험도 가능하다. 남도 전통의 손맛이 그리울 땐 가정마을로 가보자.

체험프로그램 소개

www.gjvill.kr

계절	프로그램
봄	감자 심기(각 종 씨앗 파종), 고사리 등 산나물 채취, 두릅· 배꽃 따기, 매실 따기, 다슬기 잡기
여름	감자 캐기, 다슬기 잡기, 물놀이, 양생화 관찰, 곤충채집, 옥수수 따기, 래프팅 타기
가을	마· 고구마 캐기, 고추 수확, 밤 줍기, 콩· 벼 타작, 배· 단감· 대봉감 따기, 그림그리기 및 사진전
겨울	김장 담그기, 밤· 감자· 고구마 구워먹기, 정월 대보름 당산제, 달집태우기
연중	두부· 인절미 만들기, 짬· 압화 공예, 나룻배· 농기계 타기, 자전거 하이킹, 레일바이크 타기, 천연비누· 향초 만들기

문의 및 안내

- 체험 프로그램
- 문의전화 : 위원장 011-626-0849 / 사무장 010-3852-7703, 사무실 061)363-1637

인절미를 만드는 순서는 간단하다. 먼저 찹쌀을 씻어서 불린 후 고두밥을 짓는다. 그 다음 절구통에 고두밥을 넣고 떡메를 치는데 밥이 차차게 으깨지면 그 위에 콩가루를 묻히고, 입에 꼭 들어갈 만큼의 크기로 자르면 된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찹쌀 고두밥이 고소한 인절미가 되는 순간은 그야말로 찰나다. 환상의 떡메치기가 있기 때문. 떡메치기의 진수를 경험하고 싶다면, 가정마을 위원장과 부녀회장의 떡메 궁합을 꼭 확인하라. 찰떡궁합이 따로 없으니.

<슬비 Tip>
 내 손으로 만드는 인절미,
 사먹는 인절미와는 비교도 안 될만큼
 고소하고, 톡톡퉉퉉한 맛~
 꼭 드셔보세요.



섬진강, 별이 빛나는 밤에 섬진강천문대



곡 성 가정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는 섬진강천문대다. 전남 지역에서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섬진강변에 자리한 곡성 천문대는 우리나라 천문대중 가장 낮은 곳에 설치된 게 특징이다. 이 곳엔 우리나라 순수 과학기술로 제작한 천체망원경이 설치 돼 있는데 매시 정각과 30분마다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별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는 저녁 날씨가 좋은 그믐 때란다. 달빛도 별을 관찰하는데 방해가 되기에 달빛이 가장 적은 그믐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라. 이 곳에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별들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다. 또 여기에 자신만의 별자리를 그려보면 밤하늘이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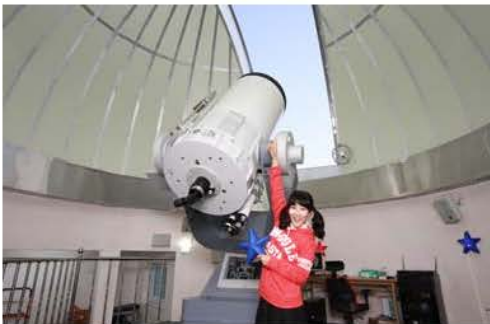
곡성섬진강 천문대 이용안내

구분	개 인		단 체 (15인 이상)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어린이 (7세 이상~12세 이하)	600원	1,000원	400원	700원
청소년 / 군인 (13세 이상~18세 이하)	1,200원	2,000원	900원	1,500원
어른 (대학생, 19세 이상)	1,800원	3,000원	1,500원	2,500원

- 운영시간 : 매일 14:00~22:00 (21시 까지 입장, 휴관일 제외)
- 휴 관 일 :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 공휴일 경우 익일)

문의 및 예약

- 관리사무소 : Tel 061)360-8528



안드로메다 별자리 중 가장 밝은 '알파라츠'가 곡성의 별로 지정돼 있다니 섬진강천문대에서 곡성의 별자리를 눈으로 확인해 보자.

<슬비미 Tip>

관측 돔을 열고 보기 때문에
겨울에는 옷을 정말 따뜻하게 입어야 해요.
별을 보기 위해선 내복은 기본이고
담요, 모자, 장갑 등을 챙기는 것도 좋아요.



꿀처럼 달콤하고, 하늘처럼 깨끗한 하늘나리 마을



곡 성군 죽곡면 상한리의 또 다른 이름은 하늘나리 마을이다.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마을은 사방을 둘러봐도 산으로 막힌 그야말로 산골이다. 이 마을의 주요 소득원은 꿀. 집집마다 벌통이 있어 밀랍과 벌통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벌통 만들기와 꿀벌 아파트 분양이 최고 인기다. 나무로 만든 꿀벌통을 완성해 주민들에게 맡기면 나중에 그 통에서 나온 달콤한 꿀을 집으로 배송해준다. 또한 하늘나리마을에는 마을 주민들이 수집한 전통 농기구들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농기구 전시 체험관'이 있는데 전통 농기구들을 통해 농촌의 옛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다.



체험프로그램 소개

nari.go2vil.org / www.nari350.com

계절	프로그램
봄	쑥,나물 캐기 / 솔순차만들기 / 매실따기 / 별집아파트 분양
여름	다슬기, 가재잡기,메뚜기 잡기 / 옥수수,감자찌 먹기
가을	밤줍기 / 감따기 / 농산물수확 체험 / 토종꿀 내리기
겨울	한과만들기 / 인절미만들기 / 고구마 구워먹기 / 썰매타기 / 연날리기
연중	밀랍초 만들기 / 벌명덕 만들기 / 두부 만들기 / 전통 농기구 체험

문의 및 안내

- 18개소 / 36실 300명
- 운영위원장 : Tel 061)362-8501 / H-P 011-9615-8501
- 사무장 : H-P 011-774-7008
- 곡성군청 : Tel 061)360-8224

하늘나리에서 시골밥상 받기



산 닭이 우는 곳, 하늘나리 마을에 가면 그곳의 시골밥상을 꼭 받아보라.
각종 산나물은 물론 구수한 된장국까지, 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으면 소박한 자연의 밥상을 받아볼 수 있다.

계절에 따라 반찬이 달라지는데 봄엔 가시오가피잎나물 같은 향긋한 봄나물을, 여름과 가을엔 장뇌삼이 들어간 토종닭백숙을, 그리고 겨울엔 감칠맛 나는 김장김치와 식후에 나오는 주홍빛 홍시를 맛볼 수 있으니 기억해 두길 바란다.



향기로운 밀랍초 만들기



350년 전통 토종꿀 마을에서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미라면, 밀랍초 만들기다. 벌집의 부산물인 밀랍으로 초를 만드는 것인데 그 과정이 매우 간단하다. 벌집을 채취한 밀랍을 끓여서 대나무 통에 담아 굳히기만 하면 끝. 밀랍초는 파라핀으로 만든 양초에 비해 훨씬 향기로우며 악취, 곰팡이 등 세균번식을 막고 공기 정화, 집중력 강화, 피부질 환에도 도움이 된다.

<슬비미 Tip>

밀랍이 생각보다 빨리 굳어서, 체험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깐요 부담없이 도전해보세요. 만들어진 밀랍초를 책상위에 두면 온온한 꿀향기와 함께 여행의 추억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



쉽과 여유를 누리는 섬진강 마을



봉조마을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봉조리

봉 조 농촌체험마을은 마을 앞으로 섬진강이 흐르는 곳이다.
마을에는 농촌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폐교를 손질해서 마련한 장소다.

'아버지 사랑방'에선 전시된 농기구를 보고 '어머니 안방'에선 살림 도구도 한번 둘러보라.
또한 산나물 위주의 소박한 음식도 맛보며, 자연 속에서 폭 쉬다 가도 좋겠다.

체험프로그램 소개

www.nari350.com

계절	프로그램
봄	고로쇠 채취, 고사리 채취, 두릅 채취, 취나물 채취
여름	물놀이, 뗏목타기, 물총만들기, 물고기잡기, 감자캐기
가을	토란캐기, 고구마캐기, 밤줍기, 감따기, 경운기 타기
겨울	쌀엿 만들기, 고구마 구워먹기, 메주만들기, 된장 담그기
연중	인절미 만들기, 두부 만들기, 뽕튀기체험, 자전거타고 마을 둘러보기



두계마을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두거리

논 과 밭을 따라 굽어진 돌담길,
 허름한 옛집이 추억 속의 외갓집 풍경 그대로다.
 이 마을에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시골집을 정비한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다.
 어릴 적, 외갓집에서 느꼈던 따스함을 다시 한 번 느껴보고
 싶다면 섬진강 두계마을로 가보라.

체험프로그램 소개

www.nari350.com

계절	프로그램
봄	계곡트래킹, 자전거타기 여행, 썩덕 해 먹어보기, 농산물 파종체험, 모내기
여름	물고기잡기, 다슬기 잡기, 계곡으로 놀러가기, 봉송이꽃 물들이기 인절미랑 손두부 해먹어보기
가을	허수아비 만들어보기, 가을추수 따라하기, 심청축제 관람하기, 섬진강길 트래킹
겨울	전통방식 밥해먹어보기, 장작때기, 고구마/감자 구워먹기, 연만들어 날리기

이야기가 흐르는 땅, 곡성's Story 섬진강 따라 전설 따라 II

열녀 동씨 이야기

나는 조유겸의 아내다.
나의 지아비 조유겸은 효심이 지극했으니,
부모를 향한 봉양에 그침이 없었다.

아녀자를 향한 사랑도 깊어 부부의 정 또한 두터웠으나
어린 시절부터 병약한지라 자리에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나는 일찍이 부덕을 배워 부모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것에 힘썼다.
남편의 건강을 빼면 부러울 것이 없던 날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게도 하늘이 무너졌으니
나의 지아비가 세상을 떠났다.
땅이 없는 하늘은 없고, 하늘이 없는 땅도 없는 법.
나는 지아비를 따라 가기로 결심하고,
스스로 목을 뗐다.

그러나 저승의 지아비를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누군가 이 모진 목숨을 살려냈으니
나는 손가락을 깨물고 피를 내어 맹세했다.

시어머니의 연세가 다할 때까지
절대로 따뜻한 옷을 입지도, 배불리 먹지도 않겠노라고.
그것이 저승의 지아비에게 할 수 있는 아내의 도리였다.

하늘같은 군왕이 나의 효도와 정절을
아름답다 칭하며 열녀문을 내렸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나를 열녀라 불렀다.

열녀가 무엇인지도, 어떻게 해야 열녀가 되는지도
나는 모른다. 다만, 나의 지아비와 부모를
죽을 때까지 은애 하였을 뿐.
내 은애가 이 길고 긴 강처럼 이어지길 바랄 뿐.
그 뿐이다

글: 박미현





섬진강아 놀자 **곡성군 청소년 야영장**

섬진강을 품고 달린다 **자전거 하이킹**

섬진강을 건너온 이야기 **호곡나룻터 줄배**

섬진강을 지키는 도깨비 **마천목장군 도깨비살**

길 따라 마음을 닦는 곳 **태안사**

태안사에 잠든 지상의 시(詩)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이야기가 흐르는 땅, 곡성's Story **섬진강 따라 전설따라**

Section 3.

섬진강 흐르니, 추억이 쌓이네
섬진강에서



섬진강아 놀자 곡성군 청소년 야영장



곡 성군 청소년 야영장은 가정역 바로 맞은편에 있다.
섬진강과 마주하고 있는 이곳은 청소년 종합 수련장으로, 섬진강의 자연 속에서 도전과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청소년과 대학생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래프팅도 할 수 있는데 시원한 물살을 가르며, 섬진강을 몸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짜릿한 래프팅에 도전해 봐도 좋겠다.

레프팅 체험료

www.ylcamp.com

개 인			단 체 (80인 이상)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25,000	20,000	20,000	20,000	18,000	18,000

*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 곡성군 청소년 야영장 : Tel 061)362-4186



곡성군 청소년 야영장 전경



곡성군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야영장에서 바라본 섬진강 야경

섬진강을 품고 달린다 자전거 하이킹



세 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길이 있다.
당신은 현재 어떤 길 위에서 있는가?
지금 서 있는 그 길이 한없이 막막하게 느껴질 때,
잠시 섬진강변에서 보라,
자전거를 타고 섬진강을 달려보라.
구르는 바퀴 사이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 고개를 들테니.
여기, 섬진강을 품고 달릴 수 있는 세 가지의 길이 있다.
당신은 어느 길 위에서, 어떤 섬진강을 만나고 싶은가.

자전거를 타고 저어갈 때,
몸은 세상의 길 위로 흘러나간다.

소설가 김 훈 (자전거 여행 중)

섬진강변 자전거 하이킹 코스

| 제1코스 |

가정리(곡성청소년야영장) ▶ 두거리 ▶ 뽕덕어멈고개 ▶ 고리실 나무터 ▶ 호곡나무터

| 제2코스 |

가정리 ▶ 수변운동장 ▶ 두계다리 ▶ 송정리 강변 ▶ 가정리(청소년야영장)

| 제3코스 |

가정리 ▶ 압록유원지 ▶ 유곡마을 ▶ 구례구역 ▶ 가정리

<슬비의 Tip>

제1코스의 유일한 고갯길,
뽕덕어멈 고개에서 과속은 금물!
길이 경사져 있으니 천천히 자전거를 모셔야 해요^^



섬진강을 건너온 이야기 호곡나룻터 줄배



전 남 곡성군 고달면 호곡리,
남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에는 여전히 '줄배'가 남아 있다.
줄배란, 강둑 양쪽에 매어놓은 줄을 당겨서 강을 건너는 배를 말한다.
한때 줄배는 섬진강을 끼고 있는 마을마다 있었지만,
강을 건너는 다리가 놓이고 길이 뚫리면서 거의 사라지고,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한 줄배 몇 척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 옛날 호곡마을 사람들이 바깥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에는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강을 에둘러 가는 것과
또 하나는 줄배를 이용해 가는 것이었다.
줄배를 타면 강을 가로지를 수 있으니



애꿎은 시간을 길 위에다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렇게 강변마을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었던 줄배가
지금은 호곡나룻터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풍경을 안겨주고 있다.

<슬비이 Tip>

줄배다 보니 줄은 당기며 배를 움직여야 합니다.
직접 줄배를 움직여보고 싶다면,
장갑은 꼭 챙기주세요!
참 강물이 높아지는 여름에는 탈 수 없다는 거~^^



섬진강을 지키는 도깨비 마천목장군 도깨비살



도깨비 이야기

우리는 섬진강에 살고 있었습죠. 반짝이는 푸른 눈동자의 대장과 함께 섬진강을 지키는 도깨비들이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나고 말았습죠. 대장이 사라졌지 뭐니까.

밤엔 도깨비로, 낮엔 작은 돌멩이가 되어 섬진강을 지키며 살고 있었는데, 아니 글썄, 강가를 지나던 한 소년이 우리 대장을 가져가더란 말입니다.

그 이름이 뭐더라, 옹거니, 성은 마가요, 이름은 천목이라는 아이였는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이다. 그날 밤, 우리는 대장을 찾으러 마천목의 집을 찾았습죠.

네가 주워간 돌은 우리대장이니 돌려 달라! 그러자 소년은 도리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강에 방죽을 쌓아달라 으름장을 놓더란 말입니다. 제 어머니에게 물고기를 잡아드려야 한다면서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죠.

허나, 대장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제 어미를 생각하는 녀석의 마음이 다를 바가 없겠
 더이다. 옛다! 방망이와 불로 섬진강에 독살을 쏘아줬습니다.

도깨비 앞에서도 눈썹 하나 까딱 앓는 그 기세가 기특해서요, 훗날, 소년은 턱하니, 장군
 이 되었습죠.

나라에 공을 쌓은 공신이 되고 나서도, 어머니가 그리워지는 날이면 섬진강을 거닐곤 했
 는데, 그와의 인연을 누군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도깨비인들...



<슬비 Tip>

초록 산과 파란 강 그리고 귀여운 도깨비 동상까지,
 사진찍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바람이 조금 세
 더라도 걱정말고 도깨비와 함께 커플이 되어 사진을
 찍어보세요. 분명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이 나올거예요



길 따라 마음을 닦는 곳 태안사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호 | 1984.02.29 지정
- 전남 곡성군 죽곡면 원달리 20 (일원)

전남 곡성군 죽곡면에 위치한 태안사는 신라시대에 세워진 고찰이다. 경내에는 해철국사 사리탑(보물 273호), 광자선사탑(보물274호) 등 9점의 문화재가 소장돼 있는데, 태안사 보림원 지하 수장고 안에는 효령대군이 남긴 바라(보물 제956호)가 보관돼 있다. 태안사 일주문 앞에는 전나무와 편백나무가 우거져 있어 상쾌한 피톤치드 향을 느끼며 산책할 수 있으니, 섬진강 여행의 피로를 고즈넉한 산사에서 씻어낼 수 있겠다.



태안사 가는 길

태안사에 이르기 위해선 많은 길을 거쳐야 한다.

그 첫 번째 길은 태안사 숲길이다.
포장이 되지 않은 1.8km의 숲길을 자박자박 걷다 보면,
이내 세상의 요란한 소리는 사라지고,
마음의 진정한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태안사에 이르는 두 번째 길은 정심교(淨心橋)이다.
마음을 씻으라는 뜻의 이 다리에는 십이지신상이 조각돼 있는데,
각자 자신의 신상 앞에 세상에서 더럽혀진 마음을 내려놓으라.

천년고찰에 닿는 세 번째 길은 반야교(般若橋)이다.
마음을 씻기 위해 더럽혀진 마음을 두고 왔으니
이번엔 지혜의 다리를 건너 태안사로 향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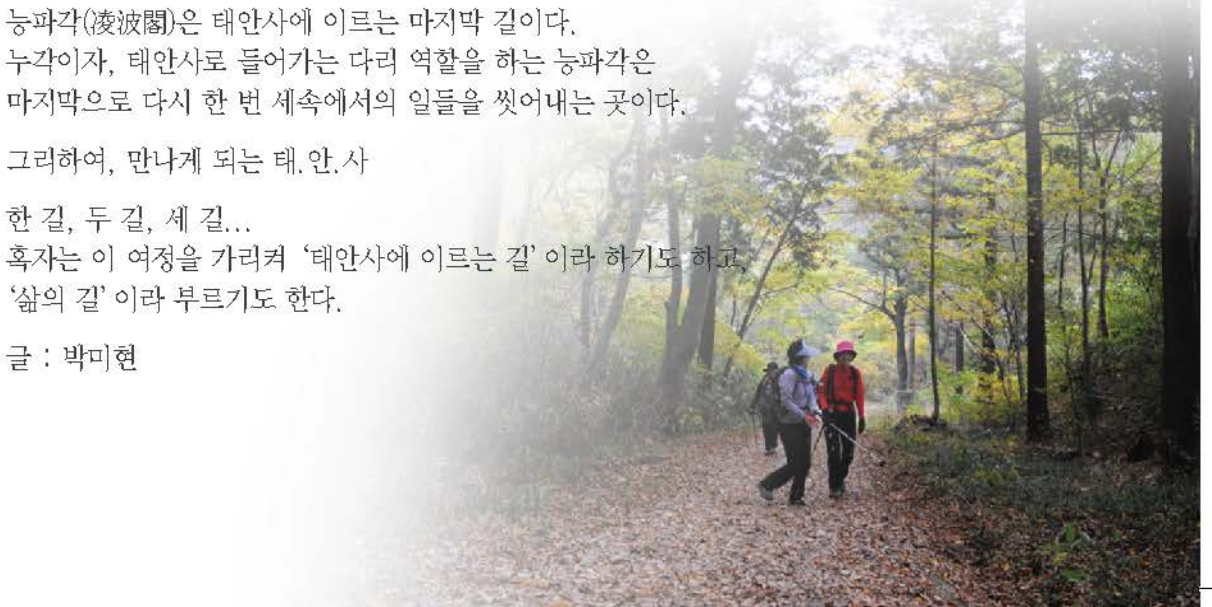
고즈넉한 산사로 향하는 네 번째 길은 해탈교(解脫橋)이다.
도를 이루기 전엔 속세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 다리 위에서
당신은 여전히 버려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능파각(凌波閣)은 태안사에 이르는 마지막 길이다.
누각이자, 태안사로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능파각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세속에서의 일들을 씻어내는 곳이다.

그리하여, 만나게 되는 태.안.사

한 길, 두 길, 세 길...
혹자는 이 여정을 가리켜 '태안사에 이르는 길' 이라 하기도 하고
'삶의 길' 이라 부르기도 한다.

글 : 박미현





태안사 연못

태안사는 연못이 특이하다. 연못을 가로지르는 나무다리, 작은 섬 위에 우뚝 솟은 석탑은 어느 절에서나 만나기 어려운 풍경이다. 연못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삼층석탑은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이인데, 가장 가까운 이의 손을 잡고, 연못 한 바퀴 거닐어 보는 것은 어떨까.



곡성 태안사 동종 (보물 제1349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 (보물 제274호)



곡성 태안사 적인선사탑 (보물 제273호)



곡성 태안사 광자대사탑비 (보물 제275호)



태안사대바라 (보물 제956호)

태안사 스님들은 직접 절 뒤 안에 녹차를 가꾼다.
 가뭄에도 샘솟고,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태안사 장군수에 잘 가꾼 녹차잎을 우려내니,
 그 차 맛 한 번 기가 막히다.
 그러나 언제나 다도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스님과 잠시나마 벗의 마음을 나눈다면...
 태안사의 그윽한 녹차의 맛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슬비의 Tip>

보물 제956호인 태안사대바라는
 무려 92cm!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라인데요.
 세종과 왕비, 왕세자 등의 수복을
 빌기 위해 효령대군이 만든 것이
 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섬진강 물리 이야기꽃 피우고

태안사에 잠든 지상의 시(詩) 조태일 시문학기념관





조태일

- 전남 곡성출생 1941년 9월 ~ 1999년 9월
- 수상 : 1995년 제10회 만해문학상, 1991년 제1회 편운문학상 성옥문화대상
- 경력 : 광주대 문예창작과 교수, 민족문학작가회의 부이사장

1941년, 태안사 대처승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조태일 시인이다. 태안사 입구에 조태일 시문학기념관이 있는데, 민족의 혼과 정신을 이야기했던 시인의 삶을 기념하는 공간이다. 시인의 삶과 죽음이 영겨 있는 곡성 태안사는 조태일 시인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를 통해 독재와 싸우고, 민중의 삶을 위로했던 조태일 시인의 목소리를 이곳에서 들어보자.



이야기가 흐르는 땅, 곡성's Story 섬진강 따라 전설 따라Ⅲ

첫 번째 이야기 _ 각시소(沼)와 남편소(沼) (오곡면 미산리 미륵동마을)

한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꿈에 그러던 남자를 만나 행복한 나날을 기대했던 처녀,
드디어 혼인날이 되어 신랑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가마가 연못을 지나다가 잘못해서 그만 빠지고 말았다.
그 일로 신부가 죽었는데, 슬픔을 못이긴 신랑이 따라 죽었다.
그 후 각시소(沼)와 남편소(沼)가 생겼다고 하는데
죽어서도 각시소(沼)와 남편소(沼)로 떨어져 있다니
부부소(沼)로 함께 머물 수 없음이 그들에겐 슬픔이지 않을까.

두 번째 이야기 _ 미륵사 돌미륵 (오곡면 미산리 산수동마을)

미륵사 돌미륵은 산수동 마을에 있는 높이 약 2M의 미륵을 닮은 선돌이다.
예부터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 이 돌미륵에 100일을 기도하면 잉태했다고 전해온다.
이곳에선 모든 이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세 번째 이야기 _ 신유봉 (죽곡면 동계리 향기마을)

어느 날, 신승겸 장군이 태안사 뒷산에서 말을 시험하기 위해 활을 쏘았다.
말을 타고 신유봉으로 달려가 화살을 찾았으나 없어서 말을 칼로 베었는데
화살이 그때서야 날아와 말 잔등에 꽂혔다.
그래서 좋은 말만 애석하게 죽었다는 전설이 남아 있다.

네 번째 이야기 _ 검색골(오곡면 봉주2리 현주마을)

약 330여년전 순흥 안씨가 묘를 쓰는데 그 자리에서 넓은 돌이 나왔다.
 풍수들이 모여 의논을 하는데
 어떤 이는 들어내라, 또 어떤 이는 들어내서는 안된다고 하다가
 결국 들어내기로 하고 돌을 들어 올렸다.
 그런데 검은 새 한 마리가 후두둑 날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재빨리 돌을 다시 제자리에 덮었는데 미처 날아오르지 못한 새 한 마리가 있었다.
 새는 그대로 제자리에 남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어 검색골이라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아직 못 다한 이야기 **곡성 둘러보기**

자연의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곡성 축제**

흥과 멋이 넘치는 **곡성의 민속놀이**

세월 따라 이어온 옛 것의 아름다움 **곡성의 전통**

자연을 담은 **곡성의 맛**

곡성 **관광안내**



Section 4.

섬진강 굽이굽이,
곡성 둘러보기



아직 못 다한 이야기 곡성 둘러보기



| 관음사 |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4호 | 1984.02.29 지정
- 전남 곡성군 오산면 선세리 2 (일원)

관음사는 백제 분서왕 3년(300년)에 성덕보살이 창건한 백제 고찰이다. 6.25때 국보 제 273호로 지정되어 내려오던 고려조 건물 원통전(圓通殿)이 타고 그 안에 보존된 국보 제 214호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불에 타 머리 부분만 남아 있다. 고대소설 심청전의 원류로 추정되는 관음사사적기(원흥장설화)의 토대가 되는 관음사는 문화재자료 제 24호로 지정돼 있다. 현재 관음사사적기는 순천 송광사에 보관돼 있다.



| 도림사 |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2호 | 1984.02.29 지정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월봉리 327 (일원)

신라 무열왕 7년 (660년)에 원효대사가 세웠다고 한다. 도림(道林)이라는 이름은 도선국사, 사명대사, 서산대사 등 도인들이 숲 같이 모여 들었다고 해서 이름 붙여졌다. 지금 절 안에는 보물 1341호로 지정된 괘불이 소장돼 있는데, 보광전 불상 뒤편에 봉안해 두었다가 행사가 있을 때 절 마당에 걸어두고 법회를 열기도 한다. 노송과 계곡, 폭포가 어우러져 있는 도림사 계곡의 절경 또한 감탄할 만하다.



| 함허정 |

-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160호
- 전남 곡성군 입면 제월리 284

섬진강을 굽어보는 언덕에 자리한 함허정은 1543년(조선 중종 38년) 광양, 곡성 지역 등에서 훈도(訓導)를 지냈던 당대의 문사 심광형(沈光亨) 선생이 지은 정자다. 물 머금을 함(涵)에 '빌 허(虛)', 비어 있으면서도 충만한 것, 무(無)에서 유(有)의 경지를 이곳에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자연의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곡성의 축제



Festival 1 _ 곡성심청축제

해마다 가을이 되면, 섬진강 기차마을에서는 곡성 심청 축제가 열린다. 가을꽃이 만발한 축제장에서 많은 관광객들은 꽃길을 걸으며 소설 속 심청과 함께 가을 추억을 만들어간다.

| 곡성심청축제 문의 |

- 곡성군 문화과 : Tel 061)360-8252



Festival 2 _ 코스모스 음악회



코스모스가 피어 있는 한적한 시골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이다. 석곡면 코스모스 음악회는 매년 가을 파란 하늘과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열리는데 석곡의 전통문화와 코스모스를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코스모스음악회 문의 |
- 석곡면 사무소
Tel 061)362-3031

Festival 3 _ 겹면목화축제



매년 가을에 열리는 겹면 목화축제는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는 옛 농작물, 목화를 통해 곡성의 자연과 고향의 옛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축제이다. 가족과 연인들은 목화 길을 걸으며 새로운 추억을 쌓고, 또 고향의 향수를 느낀다.

| 겹면목화축제 문의 |
- 겹면사무소
Tel 061)360-8610

섬진강 물러 이야기꽃 피우고

흥과 멋이 넘치는 곡성의 민속놀이



전라좌도 죽동 농악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35호)

300년 전부터 전승되어온 농악놀리로 마을 주민의 재산과 액운을 막고 풍년농사를 기원해 왔다. 그동안 전국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해 왔는데, 300년의 맥을 이어온 곡성 농악놀이의 가락이 매우 흥겹다.

짱치기

오늘날의 하키와 같다. 긴 막대기를 이용해 상대편 골문에 골을 넣어 점수를 내는 경기로 공을 발로 차거나 몸으로 밀거나 장대로 사람을 치는 것을 반칙으로 한다.

통명산숫대제

삼기면 남제마을 주민들은 숫대가 마을의 액을 막아준다고 믿어 지금까지도 숫대제를 지내고 있다. 통명산숫대제는 시작굿, 숫대 제작 시연, 산신제, 숫대제, 줄다리기, 액몰이 굿순으로 진행되는데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원등들노래

백제시대 때부터 농민들에 의해 구전 되어온 가락이다. 가락이 구슬프고, 소박한 것이 특징이다. 노동의 고단함을 소박한 노래로 풀어낸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목도놀이

옛날에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생활방식으로 목도라는 수단을 이용하였다. 산에서 나무 내리기, 다리 놓기, 집나무 운반, 묘석 운반, 땅다지기, 생활도구 운반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 등이 풍속으로 전승되고 있다.



세월 따라 이어온 옛 것의 아름다움 곡성의 전통



돌실나이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32호)

돌실나이는 석곡에서 나오는 삼베 이름을 말한다. 곡성 돌실나이는 베가 가늘고 간격이 고른 고급품으로 옛날부터 궁중선물이나 중국의 진상품으로 쓰였다. 현재 기능 보유자에 의해 죽산마을 전수관에서 제작과정을 재현하고 있다.

| 곡성돌실나이 문의 |

- Tel 061)363-4606





낙죽장도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

낙죽장도는 대나무를 이용해 만든 칼이다. 백제의 문화유산으로 알려진 낙죽장도는 옛 조상들의 운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우수한 공예품이다. 사대부 양반 규수들의 호신용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장식용으로 많이 쓰인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 제 60호인 한병문 선생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 곡성낙죽장도 문의 |

- Tel 061)362-3900



자연을 담은 곡성의 맛



곡성 멜론

곡성 멜론은 섬진강변에서 자라 높은 당도와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한다. 특유의 머스크 향기를 느끼며, 후속시켜 먹는 맛이 일품이다.

구입 시기 : 5월~11월
구입 안내 : 곡성심청영농조합법인 Tel_061)696-8945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 Tel_061)360-8386, 363-2070



곡성 약대추

곡성에서 잘 자란 대추만을 엄선, 건조하여 포장한 것으로 한약재, 제수용, 선물용으로 쓰인다.

구입 시기 : 연중
구입 안내 : 대추작목반 Tel_061)363-2625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 Tel_061)360-8386, 363-2070



곡성 배

일교차가 큰 지형적 특성과 젊은 나무에서 자라기 때문에 곡성 배는 당도가 높고 수분이 많다.

구입 시기 : 9월~다음해 3월
구입 안내 : 배영농조합법인 Tel_061)362-3150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 Tel_061)360-8386, 363-2070



곡성 사과

일교차가 큰 곡성에서 섬진강 맑을 물로 자란 사과는 당도가 높고 육질이 치밀하다.

구입 시기 : 10월~다음해 3월
구입 안내 : 사과영농조합법인 Tel_061)362-5815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 Tel_061)360-8386, 363-2070



곡성 딸기

섬진강변의 깨끗한 자연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열매살이 단단하다.

구입 시기 : 12월~다음해 4월
 구입 안내 : 곡성심청영농조합법인 Tel.061)363-8945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 Tel.061)360-8386, 363-2070



곡성 포도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는 곡성 포도는 여름 피서객에게 직판되고 있다. 알알이 영근 곡성 포도의 단맛을 느껴본 사람들은 그 맛을 잊을 수 없다.

구입 시기 : 7월~9월
 구입 안내 : 오탁포도작목반 Tel.061)362-2791/
 시설포도 옥과포도작목반 Tel.061)362-5642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 Tel.061)360-8386, 363-2070



곡성 사탕옥수수

곡성의 사탕옥수수는 설탕 없이 쪄도 달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생으로 먹어도 맛이 좋아 아이들의 간식용으로 안성맞춤이다.

구입 시기 : 4월~5월
 구입 안내 : 사탕옥수수작목반 Tel.061)362-2851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 Tel.061)360-8386, 363-2070



곡성 심청쌀

섬진강의 맑은 물과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키운 쌀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기 위해 밧짚을 깔고, 자운영을 파종해 가꾼다.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바로 찜어서 보내준다고 하니, 곡성의 심청쌀로 지은 따뜻한 밥, 먹어봐도 좋겠다.

구입 시기 : 연중
 구입 안내 : 곡성농협연합RPC Tel.061)363-0335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유통 Tel.061)360-8386, 363-2070

곡성관광안내

| 정보 및 서비스 안내 |

구분	연락기관명	전화번호
관광안내	곡성군 관광과	061-360-8224
	곡성군 문화과	061-360-8252
	곡성군 관광안내소	061-360-8850
	문화해설사 예약안내	061-360-8324
	종합관광 안내소	061-1330

| 교통편 |

노선별	운행	거리(km)	소요시간	비고
서울(웅산역) → 곡성	기차	343.7	-새마을호(4회) 4시간 -무궁화호(13회) 4시간 30분	곡성역 061-362-7788
여수 → 곡성	기차	86.5	-새마을호(4회) 1시간 20분 -무궁화호(13회) 1시간 20분	
광주 → 곡성	직행버스	50	50분	곡성터미널 061-363-3919
순천 → 곡성		46	40분	
구례 → 곡성		23	20분	
남원 → 곡성		18	20분	

| 관광지로 가는 길 |

관광지명	거리	소요시간	근내버스
도림사	-곡성~도림사(4km)	8분	곡성교통(25)
	-곡성역~도림사(6km)	10분	
압록유원지	-곡성~압록(15km)	20분	곡성교통(20)
태안사	-곡성역~태안사(24km)	30분	곡성교통(5)
광주컨트리클럽	-곡성~도림사(4km)	10분	곡성교통(30)
	-곡성역~도림사(6km)		광진교통(8)
설산	-옥과~설산 수도암(6km)	15분	곡성교통(2)
관음사	-옥과~관음사(6km)	20분	곡성교통(13)
			광진교통(10)

| 관광농원 |

시설명	위치	전화번호	주요시설
삼화관광농원	곡성군 검면 마전리 116-1	061-362-8586	- 방갈로 2동 - 직판장 1동 - 원두막 1동 - 정 각 1동 - 민 박 6실 - 주말농원 1ha - 사과 1ha, 사슴 10두
유풍관광농원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209-2	061-362-2402	- 주말농원, 직판장 - 휴게실, 공원조성 - 야영장, 체육공원 - 잔디공원, 과수원

| 숙박업소 |

업소명	예약전화	소재지
그랑프리 모텔	061-363-4563	곡성읍 읍내리
코리아 모텔	061-362-1599	검면 평장리
그린 하우스	061-363-1125	오산면 연화리
알프스 모텔	061-363-8025	곡성읍 서계리
홍콩 모텔	061-363-0300	오산면 연화리
리버사이드 모텔	061-363-8201	오곡면 압록리
중명장 모텔	061-362-1414	석곡면 석곡리
필모텔	061-363-2345	곡성읍 장선리
대원장여관 (여관)	061-363-7978	석곡면 석곡리
세종장 (여관)	061-362-5016	옥과면 리문리
자연애 (펜션)	061-363-0363	오곡면 침곡리
섬진강 문화학교 (펜션)	061-362-0313	죽곡면 태안로
화이트빌리지 (펜션)	061-363-7531	죽곡면 하한리

- 민박, 펜션, 숙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도메인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gsstay.com> · <http://www.namdominbak.go.kr>

| 관광지별 주요 음식점 |

관광지명	상호명	전화번호	메뉴
도립사관광지 섬진강기차마을	동 약 산 장	061-363-3537	오리탕·촌닭전문
	석 정 회 관	061-362-9533	불고기·촌닭전문
	백 화 회 관	061-363-2176	아구찜·탕
	궁 전 회 관	061-362-1539	한정식 전문
	동 약 회 관	061-363-5005	갈치전골·갈비찜
	우 리 회 관	061-363-8321	불고기·생고기 전문
	분 때	061-363-4242	감자탕
	홍 실 식 당	061-363-3331	삼계탕·불고기
	섬 진 강 식 당	061-363-2350	장어구이
	신포 우리 만두	061-363-6677	우동·짬면·돌솥비빔밥
	청 실 식 당	061-363-3556	추어탕·삼계탕
	함 박 가 든	061-363-8484	바다회·해물탕
	그 린 가 든	061-363-3205	오리주물럭·훈제
압록 유원지	가 든 산 장	061-362-8343	회·매운탕 전문
	남 강 가 든	061-362-5030	회·매운탕 전문
	백 운 산 장	061-362-2890,2815	회·매운탕 전문
	별 천 지 가 든	061-362-8747,8746	회·매운탕 전문
	새 수 궁 장	061-362-8352	회·매운탕 전문
	압 록 산 장	061-362-8377	차류·경양식 전문
	여 울 목 횃 집	061-362-8392	회·매운탕 전문
	오 곡 가 든	061-363-7503	회·매운탕 전문
	용 궁 산 장	061-362-8346	회·매운탕 전문
	지리산 가는 길	061-363-5842	회·매운탕 전문
	청 수 산 장	061-362-8382	회·매운탕 전문
	통 나 무 집	061-362-3090	회·매운탕 전문
	하 생 촌	061-363-6993	회·매운탕 전문
거 북 장	061-362-8338	회·매운탕 전문	
태안사	광 주 가 든	061-363-6700	회·매운탕 전문
	계 림 회 관	061-363-6911	회·매운탕 전문
	나 늠 터	061-363-3344	회·매운탕 전문
	부 흥 식 당	061-362-4488	회·매운탕 전문
	석 천 산 장	061-363-6344	회·매운탕 전문
	대 가	061-363-7557	소고기 종류
	연 화 가 든	061-362-5392	회·매운탕 전문
	태 안 산 장	061-362-4797	회·매운탕 전문
	푸 른 산 장	061-363-5392	중 국 요 리

관광지명	상호명	전화번호	메뉴
성류사 관음사	벽송 숯불 갈비	061-363-5537	추어탕 · 생삼겹살 전문
	쌀뿌리 매운탕	061-362-6668	회 · 매운탕 전문
	송 원 식 당	061-362-7070	로스쿠이 전문
	광 주 식 당	061-363-1309	오리로소 전문
	광주컨트리클럽	061-362-5533	경양식 전문
	옥 과 불 테 기	061-363-6213	불테기찜 · 탕 전문
	황 룡 회 관	061-363-1903	소 · 돼지갈비 전문
	신 촌 가 든	061-362-7911	촌닭 · 솔잎구이 전문
	한 우 촌	061-363-6062	불고기 전문
	청국장과흑두부	061-362-0104	청국장 · 흑두부
	통 큰 통 갈 비	061-362-2030	갈비 · 삼겹살
	사 랑 방	061-362-3840	삼겹살 · 주물럭
	섬진강민물장어	061-363-9155	장어구이
	녹 향 가 든	061-363-1668	비빔밥 · 추어탕
	석곡대항강휴식지	석곡돼지한마리	061-362-3077
들 실 회 관		061-363-1457	숯불돼지갈비
석 곡 식 당		061-362-3133	돼지숯불갈비
대원토종흑돼지		061-363-7976	돼지숯불갈비
우 리 식 당		061-363-5617	돼지숯불갈비

| 남도음식명가 |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통 나 무 집	061-362-3090	죽곡면 하한리 945
삼화관광농원	061-362-8586	겸면 마전리 642-2
한 우 촌	061-363-6062	오산면 연화리 6

| 좋은식단 실천업소 |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새 수 궁 가 든	061-363-4633	죽곡면 하한리 937
용 궁 산 장	061-362-8346	죽곡면 하한리 946-3
옥 과 불 테 기	061-363-1103	옥과면 죽림리 286
우 리 회 관	061-363-8321	곡성읍 읍내리 343
광주관광개발	061-362-5533	옥과면 합강리 410-12

성진강 둘러 이야기꽃 피우고

이슬비 따라 떠나는 즐거운 곡성여행

발행처	곡성군, 곡성문화원
책임연구원	호남대학교 양길승, 이희승, 조준원
연구원	이영숙
보조연구원	오성중, 임성락
글	박미현
리포터	이슬비
메이크업	임이지
사진	조성진
편집디자인	감디자인
인쇄	종로인쇄소

이 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곡성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